골로새서 1 장

1.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이며 받은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다. 수신자들이 이 편지의 앞부분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칭찬으로 기분이 좋았을 것: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라고 불리는 것(1), 너희의 소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과(2-5), 열매 맺고 자란다(6)는 말이 얼마나 큰 칭찬이었을까? 말로만 듣던 위대한 선생님께서 모처럼 보낸 편지에서 칭찬을 늘어놓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 계속 읽어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나 칭찬부터 해놓고 천천히 책망도 하고(2:20) 교훈도 하는 바울의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셨다. 반면에 '구원받았습니까?', '말만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겁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니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부류들은 문제가 있다.

2. 골로새서를 쓰도록 동기를 제공한 자는 누구일까?

에바브라: 골로새의 성도들을 가르친 자,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로 설립자다. 어떤 동기로 에베소에 갔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던 바울을 만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가르쳤다.

3.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드린 기도(3-12)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

감사(3):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것(4-6)

간구(9):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는 것과 선한 열매를 맺는 것(9-12)

4.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간구)하는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

하나님을 아는 것(9-10), 열매 맺는 것(10-11)

5.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6.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는 것(12)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뜻이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지 바울의 기도에서 정리해 보자.

1) 하나님의 뜻을 알아 → 2)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 3)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 4) 하나님을 더 알고(=아는 것에 자라) → 5) 하나님을 힘입어 능력(있는 삶을 살고)을 행하고 → 6)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할 줄 알고 → 7)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7. 구속은 곧 죄사함이다.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것인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인 아들의 나라로.

8. 그렇게 옮기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피, 그의 육체의 죽음 = 화목 제물

9.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수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필요충분조건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필요조건: 1:14, 충분조건: 1:19

10.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도 가능하지 않을까? 혼자서 안 되면 여럿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어째서 그런지 15-17을 참고로 답하시오.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1.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다.

1)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22) = 작정하심

2)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1:20)=희생하심

3) 우리가 할 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23).

4) 이상하다. 무언가 빠진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의 언급이 없다.

12.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곳곳에 기쁨이 넘쳐 흐름을 볼 수 있다. 1) 기쁜 이유 혹은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가? 2) 활동의 목적은? 3)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인가?

1) 너희를 인한 괴로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일

2)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

3) 예수 그리스도

*13. 1*장 전체 내용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장황하리만치 긴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중 어느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14.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골 *1:23)*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단다*(*골 *1:6).*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마 *24:14)* 이제 오셔도 되겠네?

온 세상, 땅 끝, 천하라는 말이 당시의 용법으로는 이방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비슷한 표현이 롬 *1:8, 10:18,* 딤전 *3:16*(만국)에도 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마 *24:14*의 '온 세상'을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지구의 모든 민족,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 미전도 종족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은 아니다.

골로새서 2 장

1. 바울은 자신이 애쓰고 있음을 알아 달라고 한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외에는 자랑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그가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랑도 하는 것이다. 하필이면 이 두 교회에만 그렇게 부탁하는 걸까? 두 교회가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은 탓이다.

2.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세상적 부와 명예와 보장된 출세의 자리를 다 버렸다. 예수가 어떠한 분이기에 그렇게까지 했을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다. 무슨 특별한 계시나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아니,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짜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3. 흔히 들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예수가 밥 먹여 주나? 성경을 믿는다고? 유대인들의 신화를 적어놓은 케케묵은 걸 믿어? 대학 들어 간 뒤에 믿든지 말든지 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4. 속지 말 것을 특히 당부하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속는다면 어떤 말에 속을 위험이 있었을까? 바울의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별 것 아니다

5.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한 후 부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다*(6-8).* 거짓 선지자들의 말 때문에 걱정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어느 어절에 가장 강조점이 있을까? *(2*군데*)*

그 안에서(×2):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말 것을 당부

교훈을 받은 대로: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에바브로디도가 제대로 가르쳤을 테니까. 잘못 배워서 엉뚱한 도덕 공부만 하면 안 된다.

6.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 학문 등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문맥으로 보아 공통점이 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신기하더라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축지법, 신기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뀌고, 안수하면 넘어져 잠이 들고, 심지어 병이 낫더라도 그게 어쨌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반 기독교적 가르침,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

*7. 9-10*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참 복음은*?)*는 어떤 분이신가? 좀 쉽게 고쳐보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 육체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 어떠한 인간도 자신의 노력으로 신이 될 수 없다. 평생을 수도해도 신이 될 수 없는 노력파들이 불쌍할 뿐이다. 단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 그래야 했는지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다. 너무나 끔찍한 사랑 탓이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길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비결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쉽게 득도*(?)*할 수 있는데!

모든 정사와 권세*(*적대적인 초자연적 존재들*)*의 머리 → 만물을 다스리는 분

8. 여러분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가?

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세례를 가리킨다. 형식적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12*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령으로 받는 세례의 그림자인 것처럼 손으로 행한 할례도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그림자이다. 그래서 할례나 세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라고 여겼다.

9.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죽지 않고 그냥 살려주는 법은 없다. 우리도 죽어야 한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본문에 어디 있나?

세례 받음: 세례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의미한다*(12).*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다. 이런 우리가 육체의 일이나 이 세상의 이런 저런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무엇을 부러워하며 무엇이 신기하겠는가!

10.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며 전한 결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다섯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다.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그러므로 *(2:6, 2:16, 3:1, 3:5, 3:12)*

11. 그림자와 몸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예수의 그림자)

12. 교회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머리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이나 외형에 치중하는 방법도 있다.

13. 개인적으로 신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1)* 어디에서 오며, *2)* 어떤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3)*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 육체의 마음을 좇아: 성령의 마음과 반대 개념으로 인간의 감정, 이성,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 헛되이 과장시킬 위험이 있다.

3) 머리를 좇지 않게 된다.

14.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16)* 꾸며낸 겸손*(17)*'과 동일 선상에 두었을까?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했을 리가 없는데?

천사 숭배라는 말이 신을 섬기듯이 천사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사 숭배라는 말을 직역하면 천사의 예배(주격을 의미하는 소유격)라고 번역할 수 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므로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만약 천사 숭배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말이라면 바울이 심하게 책망했을 것이다(갈 *1:8-9, 3:1*). 천사의 예배는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사 *6:2-3*, 단 *7:9-10*, 눅 *2:14*, 계 *5:11-12*)을 목격한 환상의 체험을 강조하는 편이다. 이런 체험의 방편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일부러 겸손함'이었을 것이다.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번역된 말도 그냥 겸손으로 번역되어야 할 말인데 금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그것(*18*절의 본 것(들))을 강조하면서 성도를 미혹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체험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나치게 체험을 추구하거나 강조하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길성남, 선지동산 *2007*).

15. 온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머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은 머리 대신 일부러 겸손, 천사 숭배, 그 본 것에 의존하도록 가르쳤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머리 노릇을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어떤 것이 있을까?

대학, 점수, 의리, 우정, 과학적 사고

16. 의문에 순종하는 것은 곧 사람의 명(하나님의 명이 아닌)과 가르침에 따르는 일이다. 어디에 도움이 되고 어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헛된 일에) 도움이 됨

육체를 좇는 것을 금하는 데(하나님을 따르는 데)에는 유익이 없음(그래서 이것을 헛된 일이라 함)

17.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장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 하나를 찾아보시오.

하나님의 비밀

골로새서 3 장

1. 문맥으로 보아 3절의 감춰었다는 표현을 무엇으로 바꾸어도 좋을까?

보관되었다.

2.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어떤 점이? (서너 가지)

죽었다가 살았다(1). 위의 것을 찾으며 산다(1-2).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3). 우리의 영광은 장래에 나타날 것이다(4).

3.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나 손해를 많이 당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불신자와 부딪히면 왜 우리가 손해를 당해야 하나?

땅에 살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고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억울한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억울한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면 그럴 수 있다.

4.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억울하고 손해를 봐서야 되겠는가?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는 건 아닐까? 다음 이야기를 참고해서 답해 보세요.

"얼마 전에 한국에 잠시 다니러 오신 선교사님이 세탁기를 공짜로 얻어서 쓰는데 시끄럽고 엉망이랍니다. TV도 하나 얻어서 쓰고 있는데 스위치도 제대로 돌릴 수 없고 화면이 지지거리면 옆구리를 한 방 때리면 제대로 나온답니다. 그런 제품을 쓰면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답답하지가 않더랍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위엣 것을 찾으며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이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에 별로 손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일 아니다.

5. 3:1-4이 말하는 우리의 신분은?

땅에 있는 하늘의 것,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거지 왕자)

6.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부럽기도 한데 도대체 어느 정도를 탐심이라고 하는 걸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을 하게 하는 정도(8-9) = 하나님도 잊어버릴 정도: 어느 정도의 욕심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자동차의 엑셀과 같은 것이다. 이걸 마구 밟으면 사고가 나지만 브레이크를 잘 사용해서 조절이(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가) 될 때 훌륭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하나님도 없이 욕심만 부리니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이다. 엑셀은 없고 브레이크만 있는 자동차다.

7.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후(8-9)에 발가벗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어진 옷을 입어야(10):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을 입어야 한다(12-14).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기꺼이 순응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입은 옷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다. 그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8. 萬有?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가 되어야 한다. 다음 각 조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에 가장 어려운 조는 어느 조일까?

1) 헬라인과 유대인(민족적인 장벽), 2) 할례당과 무할례당(종교적 장벽), 3)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야만인의 한 종류, 문화적 장벽), 4) 종과 자유인(사회적 장벽)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 경상도와 전라도,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무학자... 종과 주인, 양반과 상놈, 절대로 하나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전라도 김제 땅의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처럼!

9.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베드로에게 70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자신이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13): 10,000달란트(수십억) 탕감 받은 사람이 1000데나리온(천만원) 정도는 탕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받은 것이 있으니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만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신도 용서해야 한다(13절의 '피차'). 자신은 용서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라.

10. 용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축구시합에서도 수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온전하게 용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랑: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성막을 세울 때 은으로 만든 받침과 튼튼히 매는 줄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일련의 널빤지를 꿰뚫어 고정시키는 가로막대가 있었다. 사랑이 이런 역할을 한다.

11.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2-4:1에 잘 나와 있다. 다 외우려면 어렵겠다. 무엇만 기억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는 것*(12)*: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만큼 쉽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12. 만약에 우리가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될 때 꾀를 부리거나 상관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주를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다*(22).*

13. 만약에 우리가 상관이나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권세를 함부로 부리면 안 된다. 왜*?*

주를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다*(4:1)*

14. 女必從夫란 말이 요즈음에는 남녀평등이란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성경은 부부사이를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가*?*

사랑과 복종의 관계*(18-19)*: 하나님께서 원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 원리에 충실한 것이 제일 쉽다.

15. 부부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녀간, 상전과 종이 이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은혜를 베풀어줄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은혜로 갚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골로새서 4 장

1. 수재들만 모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실력 있는 선생님?

잘 가르치는 것보다 공평하게 대하는 선생님이 좋단다: 공부야 정 답답하면 스스로도 할 수 있단다.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아랫사람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2. 기도는 달라고 떼를 쓰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밥이 아니라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그런데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설마, 졸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

기도하는 내용을 알고 하라는 말이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수가 있을까? 가령,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해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각오를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함부로 기도하는 것은 정신없는 기도다. 입다처럼! 떼쓰는 기도보다는 감사하는 기도가 낫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깨어있는 기도다!

3. 불신 친구를 대할 때 지옥 갈 자식이라거나 사탄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권하고 있는가?

전도할 대상으로 여기고 지혜롭게 대하라*(3-5)*: 마구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생각은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한다.

4. 바울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으며 무슨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사명을 받았으며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감옥에 매인 것은 매인 것도 아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일 뿐!

5. 헬라인들은 소금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서 돈으로 여겼다. 월급을 소금으로 준 데서 영어의 *salary*란 단어가 나왔다고 한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하라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하란 뜻일까?

너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게! 입이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잘 조절하라는 것이다. 간이 잘 맞는 음식을 좋아하게 되듯이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지혜롭고 재치 있는 말을 하라는 셈이다.

6. 두기고는 설교자나 전도자도 아니면서 중요한 일에 꼭 끼어 있다*(*행 *20:4,* 엡 *6:21,* 골 *4:7,* 딤후 *4:12,* 딛 *3:12).* 뒤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없이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무엇인가?

두기고를 설명하는 세 가지 표현*(*형제, 일꾼, 종*)*이 그렇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두 가지에 불과한 말이 유독 두기고에게는 세 가지나 된다. 여기서는 아마 이 편지를 전하는 임무를 맡았을 것이다.

7. 글의 내용이나 분위기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고 골로새 교인들이 걱정스러울 뿐이다. 자신의 처지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동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보니 불쑥 자신이 감옥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어디에 그 표현이 있는가?

***10*절:** 자신이 갇혀 있어도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는 골로새 교인들을 더 염려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8-9).*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도와 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는다. 그저 원하는 바가 있다면 기도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8.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는데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란 뜻일까?

같은 표현이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7*절의 아킵보가 빌레몬의 아들로 보인다, 몬 *1:2).* 전설이긴 하지만 빌레몬은 후일에 골로새의 감독이 되었단다.

9. 아리스다고는 유독 '나와 함께 갇혔'다고 한다. 영적인 말일까, 진짜 옥에 갇혔다는 말일까? 아니면 양쪽?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적이 여러 번 있으므로 진짜 옥에 갇혔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의 소동을 만나 바울과 같이 체포되었고*(*행 *19:29),* 바울의 제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에 드로아에서 다시 동행자가 되었다가*(*행 *20:4,6),* 바울이 죄수가 되어 배로 로마로 갈 때도 함께 했다*(*행 *27:2).* 바울이 로마 옥에 있을 동안 내내 그의 수종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몬 *1:23).*

10.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이전에 대형 사고를 친 적이 있다. 무슨 사고를 쳤었는가?

선교지에서 무단이탈한 일*(*행 *13:13)*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를 깨버렸다*(*행 *15:36-41).*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발가벗고 도망쳤다.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고 있다. 바울도 마가를

동역자라고 부른다(딤후 4:11, 몬 24). 아마도 바나바가 마가를 잘 지도해서 바울을 돕도록 했을 것이다(나중에는 베드로를 도왔다).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11.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예수(유스도)를 할례파란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을 지독하게 싫어하던 바울이 왜 할례파를 소개하고 있을까?

여기서 할례파란 유대인이라는 뜻이다: 바울이 이방인 전도에 사명을 받은 탓이긴 하겠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무능(?)했던 모양이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아픔이 묻어난다.

12. 온갖 어려움을 다 돌파하던 믿음의 용사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가?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도 위로하기 위함이다(8). 성도들도 서로 위로하고 위로 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

13.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 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언급할까(13)?

이웃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씀은 동쪽의 골로새에서 오는 냉수와 히에라볼리(현, 파묵깔레)에서 오는 온수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 세 곳에 교회를 세우고 힘을 다해 섬긴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다.

14.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분량으로 보면 신약 성경의 두 번째로 많은 분량을 기록한 저자이다. 그렇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12제자도 아니요, 히브리인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직업이 의사라는 것(14): 바울이 빌립보 선교에서 잠시 등장하였다가(행 16장의 '우리' 부분) 3차 귀로에 동행하며(행 20장부터 다시 시작된 '우리' 부분) 끝까지 바울을 도왔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총정리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의 글은 의사답게 자세하게 관찰하여 기록한 것이다. 헬라인 의사요 저술가였다. 잘난 사람이었다는 말이다. 예로부터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잘난 체 하는 사람(유대인)과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끝까지 바울과 동행한 것을 보면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15. 무슨 교회가 집에 있지?

당시의 교회는 대부분 가정 교회였다: 오늘날과 같이 으리으리한 건물을 소유한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 건물을 교회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없었겠다.

16. 편지는 받는 사람만 읽는 것 아닌가?

개인적인 사신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 보내는 공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편지를 교회들이 돌려가며 읽다가 결국은 정경으로 고정된 것이다. 그 중에는 분실된(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은) 것도 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나 고린도에 보낸 눈물의 편지(고전 5:9)가 그런 예다. 빌레몬서는 극히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회람되었던 모양이다.

17. 친필로 문안하는 것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위조방지: 본문을 다른 사람이 대필했더라도 마지막 부분의 친필이 이 내용이 바울의 것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요즈음 화폐의 위조방지 기능을 하는 셈이다.